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국가의 전략적 동맹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7년 10월 5일

최근 난 ICEJ의 주관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린 장막절 축제에서 강의를 했다. 그 곳엔 메시아닉 유대인 지도자가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다. 내가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전세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전략적 동맹이었다. 그것은 전략적 동맹 이상의 것일텐데,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계시라 할 수 있다.

나는 서두에 예언서 가운데 '열방'의 긍정적인 운명을 다루고 있는 몇 구절을 읽었다. '고임(goyim)'이라는 단어는 열방, 혹은 이방인들로 번역될 수 있다. 내가 인용한 구절들 중 일부를 거론하자면, 이사야 2:2, 56:7, 예레미야 3:17, 아모스 9:12, 스가랴 14:16이다.

이브리 선지자들은 토라와 복음 사이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전통적 그리스도인도 랍비 유대교의 신학도 선지자들의 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브리 선지서 가운데 이방 민족들에 대한 긍정적 결말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공동의' 운명을 찾는 데 도전이 된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스라엘 국가의 새건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는 작업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고에 큰 과제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시각을 요구한다. 유대 측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881년, 엘리에제르 벤 예우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여 '선지자들의 땅에 선지자들의 언어'를 외복케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현대 이브리어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다비드 벤 구리온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접목시켜 이브리 선지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그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람비 쿠크는 세속적 이스라엘 국가를 곧 다가올 메시아 시대가 전개되는 데 필요한 첫 단계로 바라보아 모든 랍비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최고 랍비가 되었다.

기독교 측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이라는 연실과 연이은 1967년 예루살렘 탈환이 신약에 역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전통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그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교회에만 적용될 것으로 여겼다. 이 모든 예언들이 불연속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 '대제' 신약의 패러다임은 그 자체로 운명을 다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제적 이슬람 지하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통적 증오 탓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도록 내몰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편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뿐이다'라는 말을 하게 됐다.

모든 이방인들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열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시편 2:1, 스가랴서 12:9, 14:2 을 살펴보자.

어떤 이방인들은 선하고 또 일부는 악하다. 이스라엘은 그 차이를 찾아내야만 한다. 누군가? 무엇인가? 왜인가? '선한' 이방인들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오늘날 모세의 토라를 정기적으로 읽는 이들은 예슈아를 믿는 성도들이다. 메시아의 사명 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빛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이다(이사야 42:6, 49:8).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해야 한다.

교회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지하드가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예슈아의 재림이 이르기까지 곧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떻게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수가 있는가? 먼저, 유대 민족의 말살을 촉구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 째로, 국제 정치 포럼이 열려 그 생각을 실제로 옮기게 되어야 할 것이다.

파괴의 이데올로기는 이슬람 지하드에서 찾을 수 있다.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열었던 '이스라엘 없는 세상' 회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포럼은 UN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요소 모두가 얼마 전 아흐마디네자드가 UN 총회에서 했던 연설에서 드러났다.) 역사

상 죄소로 우리는 '왜'를 설명에 주는 이데올로기와 '어떻게'를 제공하는 정치 포럼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깨어나야만' 할 때인 것이다.

이슬람 지하드와 (UN 의) 세속 인본주의의 결합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세계관(지하드와 인본주의)을 보면 난 다니엘 서의 '짐승'이 생각한다. 그 발이 철과 진흙의 혼합이라 묘사되어 있던 짐승 말이다(다니엘 2:41, 7:7).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국가의 동맹은 이슬람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단순한 방어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이 계시를 통해 미리 드러난 것이다. 에베소서 2 장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온인을 그리고 있다. 에베소서 3 장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동역을 묘사한다. 우리에게 신이 아니라면, 그 분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야 한다. 우리는 안 분이신 메시아, 교회의 머리(엡 1:20)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요 12:13)되신 예수 아를 믿는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영적 움직임인 한편, 이스라엘 국가는 민족 정부다. 둘의 기능이 다른 것은, 영과 온의 차이와 같다. 둘 모두 목적이 있고, 피차 필요로 한다. 서로를 대체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시온주의 기독교인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강요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인 책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친구로 신뢰해도 된다. 이리도 널리 퍼져 있고, 오의적인 지지를 놓치는 것은 비극일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 이스라엘은 예수아 신앙을 비롯한 종교 표현의 자유를 여하는 나라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싶지 않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킬 마음도 없다. 그저 양측의 뿌리 자체가 개역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문화적 감성의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서 우러난 성경적 개역에 대한 추구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렐 1:6), 죽은 자의 부활(롬 11:11),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마 23:39)으로 이어질 것이다.

에스겔 37:15~28 은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막대기 둘을 취한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온 집을 뜻한다. 그리고 그 둘을 한 손에 같이 쥐는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통치 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통일 될 것을 보여준다. 두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내의 연합

이 될 것이요, 또한 영적인 의미로 확장시켜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전세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에스겔의 자리에 서 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두 막대기가 하나 되도록 기도 하자. 그 때 한 분이신 왕과 하나가 된 백성들이 설 것이다(겔 37:22). 그 분의 나라는 하나가 되고, 그 이름도 하나이리라(속 14:9).